

어른들의 출타시 불장난에 의한 화재 높아

송 재 철 (경찰청 수사지도관)

살인을 하거나 절도를 한 후 범증을 인멸하기 위해 방화를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보도가 있게 되면 곧 이어 보도에 맞춘 듯이 유사한 양상이나 수법의 사건들이 빈발하게 된다. 차량 등의 연쇄 방화같은 것들도 이런 범주에서 생각할 수 있다.

실화의 경우 '73년도 1차 유류 과동때 세탁소의 화재가 유난히 많았던 예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요즈음도 가짜 휘발유란 말을 쓰고는 있지만 차량 연료인 휘발유의 경우 안티 노크제로 쓰이는 4에틸납(TEL)의 첨가여부로 유연(有鉛)휘발유와 무연(無鉛)휘발유로 분류되므로 그 당시 가짜 휘발유란 현재의 무연 휘발유와 유사한 것이다. 아무튼 당시 이 가짜 휘발유의 주체가 세탁소용인 공업용 솔벤트로 화공약품상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어서 무허가 자동차 수리점, 배터리집, 세차장 같은 곳에서 모두 가져가동이 나다시피하여 세탁소에서는 이보다 더욱 강한(저인화점)솔벤

트를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이것이 세탁소 화재의 발생 빈도를 높인 것이다.

그런가 하면 농화에 있어서는 아이들의 불에 대한 호기심과 같은 심리적 측면에서 발생한 것이 빈도가 높다.

수년 전 서울 시내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어느 비공식 화재 조사 통계 내용 중 불장난에 대한 흥미있는 항목이 있었다.

불장난을 해 본 경험은 응답자 879명 중 69.2%(국민학생 264명, 중학생 350명)가 있다고 했다.

불장난을 한 이유는 호기심 때

문이라는 것이 응답자의 53.7%(국민학생 172명, 중학생 157명)으로 가장 높았다.

또 불에 대한 호기심은 여자보다는 남자, 중학생보다는 국민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심심풀이로 했다는 것이 29.4%(국민학생 71명, 중학생 109명)이었다.

이것들을 크게 분류해 본다면 불에 대한 호기심이나 신기함 때문에 불장난한

것이 70%를 차지하고 30%가 심심해서 불장난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어린이들은 불에 대한 호기심이 크고 무료함에서 불장난을 한다는 사실만은 분명한 것이어서 애들만 남겨두고 어른들이 출타할 경우의 농화 가능성은 자연히 상승적으로 높아질 것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에 있어서도 농화는 근 20년이 넘도록 전체 화재 발생 원인 중 방화나 담배불 처리 부주의에 이어 줄곧 3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농화의 발생 시간대는 심야 수면 시간이 아닌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에 편중되어 아이들이 학교나 유치원에서 끝나고 귀가하여 자유로이 놀 시간이고 엄마들은 이 시간을 이용해서 시장을 보러 가는 시간대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연령별로는 5세에서 10세가 반 이상을 점하고 특히 7~8세의 어린이들의 농화 비율이 가장 높다.

발화원(불씨)별로는 성냥이 가장 많고 다음이ライター인데 성냥은 7세~10세때, 라이터는 5~6세 아이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들 연령은 불에 대한 흥미 등을 나타내는 연령인 반면 화재의 공포 같은 것을 알지 못하고 화재시 소화 대응 능력의 미숙은 물론 조기 진화나 대피가 곤란하여 사상자가 쉽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발화 장소는 옥외가 대부분이나 30%정도가 건물과 관계된다.

불을 놓는 물건은 종이 부스러기나 종이 제품, 의류, 이부자리 같은 것들이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행동 범위가 넓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어린이들의 불장난 심리와 발생 시간, 장소,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불씨인 발화원의 방치, 주부의 출타가 농화 발생에 얼마나 중요한 요인이 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농화는 그 입증의 어려움이 있으나 화재 발생 직후의 충분한 예비 조사와 발화부에서 어른들이 실화했을 가능성있는 연소나 전기 기구류의 배제, 시간적으로 훈소(燻燒)와는 차이를 갖는 급속한 발염의 화재 양상으로 판단, 부모나 보호자 임회하에 조용하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누차 발

생 상황을 청취하면 농화에 사용된 발화원이나 착화물의 발견 등 어렵지 않게 아이들의 입을 통해 화재의 발생 경위가 확인될 수 있다.

또 벽장이나 다락방 같은 구석진 곳은 아이들이 장난하기를 좋아하는 장소로서 대체로 정리 정돈이 되지 않은 지저분한 장소이므로 어린이가 촛불이나 성냥, 라이터를 들고 물건을 찾는 일은 말아야 할 일이다. 미국 NFPA(미국방화협회)에서 조사한 통계는 벽장이나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화재의 약 90%를 방화 아니면 어린이들에 의한 농화로 분석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호기심에 의한 농화는 예컨대 성냥통의 뚜껑을 열고 뽁뽁히 박힌 성냥밑에 불을 대니까 성냥통이 일시에 폭발적으로 발열하면서 이리 저리 뒹굴어 다니는 것이 재미있었다든가, 난로 위에 촛농이나 초를 떨어뜨리니까 초가 지글지글 녹아 끓다가 일시에 불꽃이 확 피어오르는 것이 재미있었다든가 하는 등등으로 이러한 사례가 화재로 연결된 예는 종

종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조금 큰 소년들의 농화 장소는 밖으로 행동 반경이 넓어진다고 한다. 지금은 줄어가고 있는 놀이지만 8월 한가위에 동네마다 불싸움을 하거나 정월 대보름 불놀이가 화재를 일으키는 일도 종종 있었다.

K시 M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화재가 있었다.

동네 국민학교 학생 3명이 목조 교사 건물의 밑에 있는 공기 구멍으로 기어들어가 담배를 피우고 놀다가 날씨가 좀 쌀쌀한 것 같아 휴지들을 모아 불을 붙여 쪼고 놀다가 주위로 불이 번지자 겁이 나서 뛰쳐나와 도망하여 전 교사가 재가 되어버린 일이 있었다.

또 Y시 연연초 생산 조합 창고에서는 정월 대보름날 동네 꼬마들이 깡통에 불을 지퍼 돌리면서 놀던 중 깡통이 손에서 빠져나가 창고 밑 공기구멍으로 들어가 창고를 몽땅 태워버린 화재도 있었다.

이런 유의 정월 대보름 불놀이나 봄철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를 비롯해, 아이들의 장난으로 일어나는 산화도 많이 있다. ㉞

